



연중 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고통스러워하는 딸 안씨의 팔을 만져 주고 있는 김학남 할머니.

뇌성마비 딸 보살피는 팔순노인

장애인지원비 25만원 '한달살이'

문을 반쯤 열고 들어섰을 때, 고통스럽게 누워있는 50대 환자가 눈에 들어왔다. 안방을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역겨운 냄새, 잠도 버티기 어려운 그 방에서 팔순 노모와 손 딸이 다 된 뇌성마비 딸이 10년 넘게 살고 있다.

대소변 받으며 힘겨운 나날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인 딸 안숙자 씨(48)와 딸을 50년 가까이 보살피고 온 김학남 할머니(77). 김 할머니는 요즘 무척이나 힘들다. 앉아서라도 기어 다녔던 딸이 거동조차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대소변을 받아냈던 김 할머니가 지난해 한달 도를 넘겨 병원에 입원하면서 안씨를 홀로 남겨 두게 됐다. 그러다보니 혼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데다 정신적으로 불안한 안씨는 물이 극도로 쇠약해지면서 기력을 잃고 말았다.

김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것은 작년 9월. 세월의 무게는 김 할머니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노환으로 골다공증과 척추뼈가 휘면서, 허리뼈가 내려앉아 버렸다. 인공뼈를 놓아야만 생활할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지만, 병든 딸을 두고 병원에 계속 누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지금 김 할머니는 겨우 진통제 몇 알로 통증을 억누르며 딸 안씨 곁을 지키고 있다.

“지금까지 딸아이를 보살피어 왔지만, 힘든 줄 몰랐어. 그런데 막

상 아파서 병원 입원하니, 눈앞이 캄캄했어. 기운도 없어 이제 내 한 몸도 건사하기 힘든데 딸은 누가 보살피려 줄지...”

김 할머니는 참 기구한 삶을 살아왔다. 안씨를 낳았을 땐 뇌성마비인 줄도 몰랐다. 3개월 후 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안씨가 충격을 받아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딸이 뇌성마비인 것을 알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불행한 삶은 이렇게 시작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과 함께 살아왔지만, 뇌종양에다 폐암까지 걸린 며느리 수발을 드는 가난한 아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이곳 분당 12평 영구임대아파트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몸마저 아파... 딸 걱정 태산

“차라리 죽고 싶다”며 흐느끼는 딸 안씨. 딸 노릇은 고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어머니를 곁에 묶어 놔다는 죄책감이 굳어진 몸만큼이나 마음까지 굳어진다. 이들 모녀는 딸 안씨에게 나오는 장애인 지원비 25만원이 한달 생활비의 전부. 관리비와 공공요금 등 12만원을 내고 나면, 그야말로 ‘입에 풀칠’하기도 벅하다. 지난해엔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병원을 해결했지만, 늘어나는 약값과 생활비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후원 : 전화 (031)712-4643, 계좌 농협 165-01-105108(예금주 김학남) 김철우 기자

1월 31일 (목)

■동산불교대 '우리춤 시연회' = 우리 춤사위와 가락을 느껴 보자. 서울 동산불교대학은 오후 4시 동산법당 3층에서 '우리춤학과' 학생들의 '우리춤 시연회'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는 서울대 이애주 교수의 지도로 진행된다. (02)732-1206

2월 1일 (금)

■좋은벗들 '남과 북 문화 강좌' = 북한의 대표적인 공연예술인 '꽃파는 처녀' 등을 통해 북한 예술의 실상을 알아보자. 좋은벗들은 6시 30분 서울 서초동 정토회관에서 '남과 북 문화로 만나다' 강좌를 개최, 북한 예술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신행 캘린더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02)587-8996

■양정 청소년수련관 '생활강좌' = 대금 연주, 에어로빅, 한문, 훌레이지 제작, 장구, 웰스, 선물포장... 우아·정말 다양하다. 대금을 배워서 한 곡조 연주해 볼까.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은 1일부터 다양한 생활강좌를 준비했다. 겨우내 방에만 있지 말고 활기차게 움직여보자. (051)868-0750

2월 2일 (토)

■우리는 선우 가족법회 = '우리는 선우'가 3시 30분 서울 장충동 선우법당에서 유족복지관장 성덕스님을 법사로 초빙해 가족법회

를 봉행한다. 주말을 맞아 가족끼리 모여 독송도 하고 예불도 올리며, 신심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02)2278-8672

■은평구립도서관 '무료영화 상영' = 꼬마들에게 신나는 영화상영 소식. 곰돌이 푸우, 다이너소어, 빅스라이프, 슈렉...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산하의 은평구립도서관에서는 오후 2시 도서관 지하1층 시청각실에서 청소년을 위한 무료영화를 상영한다. 24일까지 총 8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02)385-1671

2월 3일 (일)

■농인선원 '입춘철야 정진기도' = 겨울의 끝자락에 서서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고 3천배 정진을 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도 뜻깊은 일이 아닐까. 서울 농인선원은 밤 11시 서울 서초구 분원법당에서 '입춘철야 응명정진기도'를 올린다. (02)554-8411

2월 5일 (화)

■금강불교문화교육원 '정토삼부경 강의' = 극락정토세계에 대한 의문을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서울 금강불교문화교육원은 이날부터 2달 동안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8시 하암동 본원에서 법상스님의 '정토삼부경 강의'를 준비했다. 참가비는 매달 2만원. (02)893-2700

■승가원 '자원봉사' = 자비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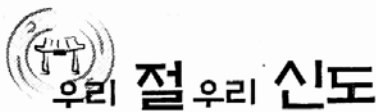


◇불자들이 소쩍새마을에서 이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은 불자의 기본행. 장애인 식구들이 모여사는 '소쩍새 마을'을 찾아가 부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해보자.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은 오전 7시 30분 조계사 입구에서 셔틀버스로 출발, 소쩍새 마을을 방문해 자원봉사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02)928-0750

"무료급식하며 부처님 만나요"



통도사 부산포교원 김정두씨

목소리란 높다는 말이 있다. 말만 앞서고 실적이 뒤따르지 않을 때 흔히 쓰는 말이다. 그러나 통도사부산포교원에는 목소리 큰 행동대장이 있다.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연화공양회의 무료급식을 큰 목소리로 총괄하는 김정두(51·건축업) 회장은 큰 목소리만큼 행동도 날쌔다. 화요일 오전 9시면 어김없이 급식 현장에 도착해 텐트 치는 것부터 그릇, 물 등 급식에 필요한 일체를 챙긴다.

연화회원과 4년째 화요일 공양준비

"5백여 노인들 맛있게 드시니 기뻐요"

이어 연화공양 회원들 17명이 밥, 찬, 국 등 밥은 분야별로 급식 준비를 서두르면 어느새 급식준비 완료. "매주 화요일의 업무 약속은 무조건 오후 3시 이후에 잡는다"는 김회장은 아무리 큰 계약이 있어도, 심지어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해도 화요일 오전 시간은 무료급식을 위해 비워 놓을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김 회장의 주업은 봉사고, 부업이 건축업이라고 우스갯소리를 골잘 한다.

김 회장이 무료급식이 주업이 되었던 사연은 이렇다. 4년 전 부인 강순자(46)보살을 따라 봉암암 순례를 갔다가 통도사부산포교원 금강회 거사들의 봉사활동을 지켜보고 대뜸 "나도 봉사 좀 합시다"고 자청했다. 그렇게 금강회에 가입한 김회장은 우선순위로 심산스님이 북한 통포를 돕기 위해 모아 두었던 쌀을 IMF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회향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어렵고 힘든 곳에



◇최근 한 사회단체가 김정두 회장(서있는 사람들 오른쪽에서 네번째)의 자비행을 전해 듣고 쌀을 전달했다.

인들이 찾아와 또 일년 연장되고 말았다. 급식을 계속하는 동안 각계 각처에서 음료수를 보내오고 쌀을 보시하는 등 정성을 보태왔다. 이제는 연화공양회의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정성을 모아 전하는 심부름이 되었다.

"시작하기도 전에 5~60분이 먼저 와서 기다려요. 어떤 분은 두 그릇을 먹기도 하는데 그분들이 눈에 아롱거리고 마음에 걸려 그만둘 수가 없어요." 시작은 쉬워도 그만두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부처님의 자비 손길이 두루 미쳐 배고픈 이들이 없어진다면 무료급식 봉사를 그만 둘 수 있을텐데...

김 회장의 새벽기도는 그래서 더욱 간절하다. 오랫동안 이어온 습관대로 새벽 23시엔 어김없이 일어나 108배를 한 후 모든 생령있는 존재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

한다. 김회장은 "급식하면서 늘 부처님을 만난다"며 "연화공양회원들의 정성어린 마음, 일일 봉사를 오신 분들의 손길, 또 공양물을 보시해주는 많은 분들의 따뜻한 정, 또 한끼 밥을 맛있게 드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 모두 부처님"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김회장은 부처님 모습을 한 연화공양회의 모든 보살들을 '꽃보살'이라 부른다. 박사자 연화공양회 총무는 "우리보고 꽃보살, 꽃보살하고 부르니 절로 웃음이 나고 힘든 점이 있어도 즐겁게 일할 수 있다"며 "특히 노인분들을 친부모처럼 대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걸 배운다"고 김 회장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정두 회장의 원은 안정적인 실내 공간을 마련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급식을 일주일에 두 번, 나아가 매일 하는 것이다.

추천의말

심산 스님 통도사 부산포교원장

수천 명의 배고픔을 해결해 준 연화공양회를 탄생시킨 주인공이다. IMF의 위기로 고통



받는 실직자와 배고픈 영세가정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를 자신의 일처럼 3년 넘게 이끌어 왔다.

또한 통도사부산포교원 크고 작은 행사에서 언제나 주인 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기울이는 김정두 회장을 자주 대한다. 오로지 어려운 이들을 돕겠다는 일념으로 말보다는 행동으로 무료급식에 관련된 대소사를 챙겨왔다.

생업이 있음에도 매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시간을 내 주었고, 회원들을 격려하며 술선수 범하는 실천을 보여왔다. 몸을 아끼지 않고 행동하는 김 회장의 모습은 진정한 불제자의 길을 보여준다. 말이 앞서서 세대에서 김 회장의 한결같은 행은 개인의 수행이 실천으로 이어질 때 얼마만큼 크게 회향할 수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큰 가르침이 되기에 충분하다.

나며 손사래를 치던 김 회장은 "내가 밥 한 그릇 먹고 배부른 것 보다는 나 아닌 누군가가 배부른 것에 더 행복을 느껴야 진정한 불자"라고 강조 했다.

천미희 기자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2002 학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한문학과 개설

과목	· 한문법(1, 2), 한문법(2) · 명심보감, 장자, 주역, 천자문 · 발심수행장, 천수경,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교수진	· 실재종교수(통주대), 한정실법사 · 승학우교수(승가대), 무진장스님

불교미술학과

이론편	인도불교미술, 중국불교미술, 한국불교미술, 동남아불교미술, 불교사찰, 탑, 불상, 회화, 문방미술, 고려미술, 조선미술, 티베트미술, 현대불교미술, 불화평상도, 정토평상도, 화엄평상도
실기편	민화, 단청, 사천왕, 3부중, 팔상성도, 보살상, 부처상, 영산평상도, 정토평상도, 화엄평상도, 만다라

우리 출학과

지도교수	이애주(서울대 교수) (중요 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예능 보유자)
교과목	① 우리춤 기본(춤놀이의 기본, 토대 교육) ② 승무 기본(염불가락, 타령가락, 궁서리 가락) ③ 악법 기본(승의 기본 사위와 바라춤) ④ 북과 장단기법(북춤과 우리 장단의 기본)

포교현장의 법사양성(3년과정)

2002년도 동산불교 경전연구원 신입생 모집

1. 교과목 및 교수

과목	요일	개설기간	교수	비고(개설과목)
불교학과(국학강연회)(화요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극락강연회(이대경·무량수경)	최봉수 교수	극락강연회(1)(2)·법화경(1)(2)(3)·금강경
정토학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신화강연회(이동원강자)	한정실 법사	신화강연회(1)(2)·화엄경 약학, 법성계·화엄심지품(1)(2)
최봉수 교수의 근본불교학과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아함경(사제명·12년기설)	최봉수 교수	극락강연회(1)(2)·경토삼부경 황성론·무량수경종요·장엄법륜
승학우 교수의 대승경전학과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천태소지관	승학우 교수	이화경 반야경 법화경 화엄심지품
인도-티베트학과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베트어	최중남 교수	천태소지관 금강경 대승기신론 조문(3번), 능엄경(8번)

2. 모집방법 및 전형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① 불교대학(경구) 이수자 ② 불교양대학(2년) 이수자 ③ 과목별 이수 희망자	① 입학원서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④ 불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2002년 2월 1일~2002년 3월 2일(토) [서류전형]

3. 개강일시

● 불교학과 : 2002년 3월 4일(월) 오후 7시, ● 근본불교학과 : 2002년 3월 7일(목) 오후 4시

4. 입학금

일시만원

5. 졸업자격

3년과정의 부처님 법음이 가득한 경전(매주 2강좌)을 이수한 분에게 연구원 졸업장을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접수

본 연구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 02)732-1206-8 / FAX 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org